

# 中 인공지능 갖춘 동자승 로봇 등장

베이징 용천사 개발... 음성명령 수행·교리 설명 등

20여 개 질문 답변, 보행도 가능  
지난 10월 개발 후 '개인 수행'  
SNS통해 전 세계적 관심 폭발  
"과학과 불교, 반대적인 것 아냐"  
기능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 계획



중국 베이징의 용천사가 음성명령을 통해 신도들에게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로봇 승려 '산얼(Xian'er)'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출처=foxnews

'스마트 문화'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을 위해 중국 베이징의 한 사찰에서 불경 읽어주는 '로봇 스님'을 개발해 화제다. 이 로봇 스님은 불교 교리와 진언 등을 신도들에게 설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과 종교의 접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국 언론 'The guardian' 4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유명 사찰인 용천사(Longquan temple, 龍泉寺)는 음성명령으로 움직이고 간단한 대화까지 가능한 로봇 승려를 개발, 신도들을 위해 공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산얼(Xian'er)'이란 이름을 가진 2피트(약 60cm) 높이의 로봇 승려는 노란 가사를 입고, 일반 스님들과 같이 사찰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슴에 터치스크린이 부착돼 불교 또는 용천사 관련 20여 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또한 2족 보행이 가능하며, 바퀴는 7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용천사가 제작한 불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산얼'에서 착안된 것이다. 용천사는 2013년 같은 이름의 '산얼'이란 승려 만화 캐릭터를 개발, 동자승의 사찰 생활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으로써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문화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용천사 주지 세칭(Xuecheng) 스님은 "불교는 명상과 자기 수양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며 "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교 교

리와 지혜, 자비를 더욱 쉽게 전하는 것 또한 그 역할"이라 강조했다.  
산얼 로봇 승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등 기계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 요즘 세대들을 위해 개발됐다. 개발자인 산외안(Xianfian) 스님은 "인공지능이 불교 지혜를 중국 내에 전파하는데 긴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학과 불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외안 스님은 "불교는 내면에 대한 의식을 중요시한다. 즉 개인의 영적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나는 불교가 스마트폰 등 물질문명이 지배하

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 심리의 간극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접목할 때 더욱 친근히 다가갈 것"이라 덧붙였다.  
산얼 로봇 승려는 중국 기술 전문회사와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개발돼 지난 10월 대중에 공개된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로봇 박람회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나, 주로 용천사에서 명상을 실시하며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산외안 스님의 SNS를 통해 산얼 로봇 승려의 존재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SNS에서 산얼 로봇 승려를 처음 접한 미셸 유(Michelle Yu) 씨는 "보기에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 산얼 승려가 사람들에게 더 전파된다면 불교가 대중화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기술개발 전문가 'digitaltrends'에 따르면 용천사는 이미 산얼 로봇 승려 기능을 개선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digitaltrends'는 "용천사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보유한 새로운 로봇 승려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만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일상에서 영적인 것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로봇 승려와 함께 쉽게 명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경찰 스트레스, 명상으로 '극복'

캐나다 토론토서 신입 경찰 35명 명상 수업 참여



35명의 신입 경찰들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부 미시소가에 있는 불교명상센터에서 신입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명상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크리스천 뉴스

캐나다 신입 경찰들이 사찰에서 명상 수업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미국 기독교 인터넷 언론 '크리스천 뉴스(Christian News)'는 4월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지역 신입 경찰들이 사찰에서 명상을 통해 직업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5명의 신입 경찰들은 4월 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남부 미시소가(Mississauga)에 있는 웨스트 엔드 불교명상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토론토 지역을 관할하는 필(Peel) 지역 경찰서에서 신입연수 교육을 받고 있다.  
신입 경찰들은 사찰에서 스님이 지도하는 마음챙김 명상과 불교 철학 강좌에 참여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은 불상이 모셔진 법당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었다.  
필 지역 경찰서 소속 로리 블라슈크(Lori Blashuk)경관은 "신입 경찰들을 위해 사찰 프로그램이 도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특히 직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찰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웰빙(well-being)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한 마그디 유난(Magdi Younan) 필 지역 경찰서 경위는 사찰 명상체험에 대해 "현장 학습"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찰 체험을 신입 경찰들의 의무 교육

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 경찰서의 요청으로 이번 명상과 법문을 교육한 반트 사라나팔라 스님은 "내가 경험한 통찰과 영적인 생각을 신입 경찰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치안 유지에 힘을 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 지역 경찰서는 신입연수 교육 후에도 경찰들이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명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온타리오 관할 경찰서도 필 지역 경찰서의 교육 효과에 주목하고, 오는 5월에 비슷한 테마의 명상 세션을 지역 사찰에서 열 계획이다.  
한편 크리스천뉴스는 구글·페이스북·애플·타겟·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북미지역 기업들이 명상과 마음챙김 프로그램, 요가 등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언급했다.  
크리스천뉴스는 "힌두교와 불교 등 동양권에서 전파된 종교와 뉴에이지(New age)가 미국에서 점점 각광 받고 있는 상황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동양권 국가에서 전파된 다양한 종류의 명상수행방법들은 의식수준의 '전환과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2000년 전 희귀 불교경전 필사본 공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서 발견... 동남아서 전시 예정

2000년 전 만들어진 불교 경전 필사본이 베트남의 유적 도시로 알려진 후에(Hue)에서 공개된다.  
베트남 인터넷 언론 '베트남넷(Vietnam.net)'에 따르면 4월 25일(현지시간) "희귀 불교 경전 필사본이 테라와다 불교 사원인 후엔 쑹(Huyen Khong) 사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후에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4월 29일부터 열리는 베트남 필사본 전시는 베트남 불교 승단 최고 지위에 있는 팜퐁 스님이 지난 1월 세계불교평화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필사본을 보고 추진한 것이다.  
이 필사본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에서 노르웨이, 일본, 독일, 미국의 고고학 교수들의 참여로 진행된 유물 발굴과정에서 발견됐다.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노르웨이 정부

가 태국 승단을 비롯해 동남아 및 북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전시를 허가한 바 있다.  
팜퐁 스님은 "고대 문화유산 전시 작업에 베트남 승단과 태국 승단이 함께 참여했다"며 "대중에 공개되는 불교 경전 필사본은 2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고고학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전시는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외 전문가들과 불교 국가 내 승단들도 경전 필사본 전시 작업에 참여했다.  
노르웨이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단과 태국 불교 승단이 후에시(市)를 방문했으며, 50명의 불자 공무원들과 태국 불자들이 방문했다. 또한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4월 2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에서 발견된 불교 경전 필사본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 및 북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2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출처=베트남넷

(ASEAN)의 회원국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같은 날 흐영강에 연등을 띄우는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팔리어, 라틴어, 영어, 미얀마어, 태국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고대 불교 삼장(三藏)도 함께 공개된다. 이보형 객원기자

# 헤이안시대 불상 50년 만 대중 앞에

4월 29일~5월 8일 호카이지 사원서 전시

헤이안시대(794~1185) 후기인 1051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중요지정문화재 '약사여래상' <사진>이 50년 만에 일본 가나와나(Kanagawa) 현 호카이지 사원에서 전시된다. 이는 1965년 이후 처음 대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그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은 4월 26일 "호카이지 사원은 약사전 내의 지시(zushi) 제단에 보관해오던 약사여래상을 4월 25일 공개했다. 약사여래상은 금박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었으며, 약사여래상을 보호하기 위해 카마쿠라 시대(1192~1333)에 제작된 12보살상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시는 4월 29일~5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이름 기자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동반  
**마하연 여행사**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  
YESGOOD.CO.LTD  
[문의전화] 02-365-7747  
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www.mahayeon.com

인연이 닿아야 갈수있는 곳  
천불천탑의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펜타야]  
미얀마 7일 (3대 성지)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싸이티오]  
미얀마 5일 [양곤-바간-헤호]

마하연투어만의 특징  
1.적정 연령으로 중년미친을 뺀 가족  
2.오랜 경험으로 현지불교행사 진행  
3.포털-행사-식사(타사비교 필수)  
4대불산 중국 [China] 990,000원부터~  
[지장도량]구학산-[관음도량]보타산6일  
[문수도량]오대산/북경/ 5일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지장도량]구학산/황산/항주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태항산-천계산-요산(208m중원대불)  
공중도시 면산-태항대협곡 5일  
청도/공부/태산6일(웨이리쿠즈)

남방불교의진수 인도/스리랑카  
하늘과맞닿은 불교성지 티베트/부탄/네팔  
KOREAN AIR 부탄순례지 NO경유! 인천->네팔,부탄  
인도 11일 (8대성지) 티베트(하늘열차) 8일  
스리랑카 6일 동티베트 9일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성도-문천-마얼링-오명불학원-야장스-관당  
인도/네팔 15일 티베트6일  
부탄/네팔 8일 성도-라짜-암드록초-간제-시가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 순례지  
대만/라오스/베트남 캄보디아  
대만5일 대만3대 사찰순례  
대만/홍콩5일 홍콩(2)-대만(2)-화련  
태국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6일 하롱베이-루앙프라방  
베트남/캄보디아6일 하롱베이-싸엠림